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병식
초당대 총장

6·4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이어 7·30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정가는 지금 그 결과를 두고 쉼이 한창이다.

지역, 세대, 이념 등 여러 각도에서 득표결과를 분석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당내의 계파는 계파별로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행했던 여러 전략 및 선택에 대하여 효과도 분석하고, 공과도 따진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선거를 2달여 앞둔 시점에서의 합당이었을 것이다. 과연 합당효과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나름대로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분명치는 않은 것 같다.

‘통합의 가산효과, 감산효과’

합당을 주도했던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주류와 이에 소외돼 전략공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비주류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것을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어 할 뿐,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 같다.

언론에서도 여야 양당이 무승부라고 두루뭉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듯한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통합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보다’라고 짐작해 볼 뿐이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여서 팀웍이 대개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문제는 그 중요도에 비추어 선택 전에 그 효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는데 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물질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많은 경우 여러 성분들이 섞여 서로 섞이거나 나누어지는, 분리와 혼합의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물질의 경우는 사람과 다르게 ‘혼합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전문 용어여서 다소 생소하지만 ‘부본물 특성치’는 값을 산출함으로써 계산이

가능하다. 예로, 물과 알콜을 같은 양 혼합하면 그 부피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낼 수 있다. 이 경우 혼합 후의 부피는 원래보다 대략 3% 가량이 작아진다. 이 계산의 핵심원리는 섞여지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자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 자기 고유 에너지인 포텐셜 값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성분의 량과 온도 등 주변의 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계산 원리를 잘 원용하면 사람들 간의 통합효과를 유추해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물질계에서는 사람과 다르게, 혼합은 쉽게 이루어지고 분리는 어렵게 진행된다. 그 이유는 자연계에서는 모든 분자가 에너지를 고루 나누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쌀알과 보리를 섞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성분을 섞는 일은 어린이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원상태로 나누어 분리하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반면 사람의 경우는 그 반대다. 자기만의 에너지를 높이는,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해야

상충되어 헤어짐은 쉽게 일어나고, 함께 하는 연합이나 통합은 어렵게 진행된다.

이에 더하여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하나 있다. 혼합에서의 가산과 감산효과다. 빛의 색은 혼합하면 더 밝아진다. 즉 빨강, 파랑, 초록인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원래 색보다 더 밝아진 흰색이 된다. 가산효과다.

반면에 물감의 색은 더 어두운 색이 된다. 마젠타, 시안, 노랑, 즉 액체의 삼원색을 합치면 검정색이 된다. 감산효과다. 즉 끈적끈적한 액체 물질들을 합치면 더 어두워지고, 빛과 같이 투명하고 밝은 분자들은 이전보다 더 밝아진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다르듯이, ‘사람들 간의 통합’에 물질은 예로 들어 해석하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고 상대를 밝히는, 투명한 물질들 간의 혼합, 즉 속심 없는 순결 혼합에는 ‘가산효과’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 만하다.

우리 정치에서, ‘사람들의 이합집산’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면, 되도록 상호 에너지가 증가하는 ‘가산혼합’ 쪽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의료칼럼

속담에 나오는 눈 건강 이야기



박진우
보리안과 원장

이니 눈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속담도 있다. 마음의 맑고 흐림이 자신의 눈에 나타나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진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눈을 깨끗하게 하려면 절제된 삶은 기본이며, 눈 주위 위생상태도 신경써야하고 다래끼가 반복된다거나 렌즈를 오래 사용하면 마음의 거울인 눈이 충혈되고 결막이 부어올라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970년대에는 근시 등으로 안경을 쓰는 초등학생 비율이 15% 정도였는데, 2010년대에는 53%로 늘었다고 한다. 따라서 게임, 인터넷을 하더라도 한 시간에 10분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고, TV 등을 시청할 때도 실내조명은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표현은 매우 짧은 순간을 나타내는 관용구인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는 농담이 있듯이 눈꺼풀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0.3초정도로 빨라,

비비탄 같은 것이 날아도 눈에 직접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요즘같이 스피디한 사회에서 ‘10초 라식’이라고 해 10초 이내에 시력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술법이 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심봉사처럼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할 만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눈은 자주 깜빡여 주는 것이 좋은데 성인인 1분에 대략 15번 정도 깜빡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하지만 주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나 게임을 하는 사람을 지켜보면 거의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100% 안구건조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적당한 눈 깜빡임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 무척 중요하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은 터무니없이 얇은 생개로 눈을 속이려고 한다는 뜻으로 친구가 두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고양이처럼 아웅한다고 누가 이 친구를 고양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간혹 안과적인 주의사항을 안 지켜면서 불편하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일례로 렌즈

착용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력의 개선과 깨끗한 눈을 원한다면 이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눈웃기시디’, ‘눈웃기시디’는 눈에 박힌 가시를 말하는데 눈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아프고 원망스럽겠는가. 이 속담은 몹시 미워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안과환자 중 많은 경우가 눈에 이물이 들어가서 내원한다. 이 경우 함부로 눈을 비비면 절대 안되고, 눈에 안약 등을 넣고 많이 깜빡여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빨리 안과전 문병원을 찾아 원인을 제거해야 호전된다. 오래 참은 후 제거하면 혼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불타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 속담은 사람에게 빠지는데 있어서 눈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아니라 백내장 등 질환이 생기면 세상이 흐려 보이고 물체가 틀어져 보여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할 때 위험하다.

기고

함께 만드는 꿈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



최영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본부 본부장

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 속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다. 드라마, 영화, 각종 영상매체, 어느 곳 하나에도 음악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각종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대중가요에 열광하고, 팬담을 형성하여 좋아하는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길목 곳곳에도 추억의 노래가 함께 하지 않던가? 그렇기에 아이들을 돕는 전문기관이라 말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아동들의 변화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했고 어려움이 많았다. 2010년 10월 18일 목포 한 허름한 산정농공단지를 빌려 32명의 시실아동들을 데리고 음악교육을 시작했다. 악기를 처음 만져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교육 받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하며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적도 많았고 부족한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 안 뛰어다녀본 곳이 없었다. 폐가의 한 초등학교를 빌려 연습을 했지만 곧 철거에 들어가 오케스트라 연습장소가 없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악기연주를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 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긴다고 했던가.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며 조금씩 끈근 해지는 아이들의 유대관계와 후원자들과의 따뜻한 만남, 그리고 진심을 알주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길이 보이는 듯했다. 그 중 가장 기뻐한 일은 아이들의 변화였다. 부모님을 보지 못해 내성적이고 상처 많은 아이가 악기연주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적도 있었고, 악기연주를 통해 ADHD가 좋아진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 인사를 하고 밝게 웃고, 무대에서 악기 연주하는 걸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다. 아이들 가슴에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어릴 적 악기 연주하며 즐거워하던 일을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짓겠는가.

매년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5개 시·군 단원들이 모두 모여 연주하는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비롯, 올해부터는 각 시·군의 오케스트라에서도 장단연주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보다 연주무대에 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는 오케스트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누구 하나의 후원금, 누구 하나의 힘으

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오케스트라. 그래서 한 아이가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교육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교육받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 진심을 담고 아이들 변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그게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가 전남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지금까지 수십 명의 강사 선생님과 봉사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이유이다.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가 19일 목요일 저녁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장단연주회를 진행한다. 이 날은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아동들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된다. 지금껏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음악을 배울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음악이란 도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가 지역민의 참여와 나눔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만큼 이번 창단연주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와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다면 어떨까. 이번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의 슬로건인 ‘참여와 나눔, 함께 만드는 꿈’처럼 말이다.

社說

국민에게 희망 안긴 태극전사들의 투혼

태극전사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서 아쉽게는 하지만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8일 오전 쿠이아바의 판타우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유럽의 북병’ 러시아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1-1로 비겼다.

한국은 월드컵 경험이 없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다 그동안의 전력에 비추어 러시아에 밀릴 것이라는 국제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았으나 실제 경기에서는 탄탄한 조직력으로 시종일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러시아가 월드컵 유럽 예선전서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한 강호라는 점에서 16강 진출의 자신감을 더하게 됐다.

한국은 알제리, 벨기에와의 남은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승점이 전기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4년 동안 피와 땀으로 다져온 훈련과 다져온 의지로 극복하지 못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H조에서 최소한 조 2위를 기록해 16강에 진출하려면 일단 알제리를 상대로 반드시 승점 3을 확보해야 한다. 알제리를 꺾는 벨기에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 우리 국민은 이날 월드컵 응원전을 통해 모처럼 하나가 됐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지의 교민들까지 이 경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팀을 응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슬픔과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안겨줬다.

23명의 태극 전사들은 남은 두 게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승리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기를 당부한다. 국민들도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경기를 즐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태극전사들의 계속되는 월드컵 승진보를 기대한다.

광주·전남 어린이 ‘삶의 질’도 형편없다니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16개 시·도 어린이들의 건강함과 주관적 행복감 등 47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어린이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경제 때문에 성인들의 생활여건만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성장 환경 역시 좋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행복 평균지수’를 맞추기 위한 자치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광주·전남 아동의 ‘삶의 질’ 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다. 평균 100점 기준으로 전남(94.4)은 꼴지에서 세 번째였으며 광주(98.79)는 하위권인 10위에 머물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들의 위험·안전 영역이다. 광주의 경우 전국 꼴지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 지역 어린이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신체적 피해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크거나 비행 등

각종 범죄로 피해를 당할 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의미다.

전남지역의 어린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관적 행복감(99)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13~16위권으로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다만 주거환경 분야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타지역보다 잘 보전된 자연생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대비책은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광주·전남 아동들의 ‘삶의 질’이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된 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어린 세대들의 삶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미루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다. 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다.

無等鼓

징크스는 불길한 징조의 물건이나 어떤 일을 말한다. 특정한 조건하에서 자주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과 맥락을 같이한다.

징크스의 유래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魔術)에 쓰던 어떤 새(딱따구리의 일종)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 이 새를 가리키는 그리스어(junx)가 변형되어 징크스(jinx)가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868년에 나온 유명한 노래에서 비롯했다는 설이다. 제목은 ‘기병대장 징크스’ (Captain Jinks of the Horse Marines). 노래 가사를 보면 과연 그럴 만하다. 훈련을 나간 기병대장 징크스는 나팔 소리 때문에 병이 난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오르다 모자가 떨어지는 등 불길한 일들을 계속 겪는다.

징크스는 인과(因果) 관계보다는 우연의 결과가 더 많다. 그림에도 운동선수 등 직업적으로 승부를 겨루는 사람들은 이를 믿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수염을 기르고 나온 선수는 이전에 면도를 했다가 경기에 진 적이 몇 번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월드컵축구 대표팀이 어제 새벽 선전했다. 강호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 이근호의 슈팅도 환상적이었지만 기성용과 함께 ‘더블 볼란치’의 한 축으로 나선 한국영의 활약이 돋보였다.

‘볼란치’는 암박수비형 미드필더를 뜻한다. ‘방향타’를 뜻하는 포르투갈어(Volante)에서 유래된 말이다. 최종 수비진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저지하거나 공을 빼앗아 공격진에게 연결하는 역할이다. 한국영은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러시아의 거센 공격을 막아냈다.

물론 우리 대표팀에도 징크스는 있다.(언론에서 흥미 삼아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 ‘화이트 징크스’다. 역대 월드컵에서 상하의 흰색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는 것이다.(1무3패) 이번 러시아전에서도 1무를 추가해 그 징크스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징크스 아닌가. 일단 붉은 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알제리전(23일)을 승리로 장식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벨기에전(27일)에서 기어이 ‘화이트 징크스’를 깨고 금의환향하기를. /이희재 논설고문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